보도자료 ★ 10월 12일(목)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AI)의 미래를 여는 경남교육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보 도 자 료	
기관명	창녕여자고등학교	학교(기관)장	교장 하태욱
배포일자	2026. 10. 12.	담 당 자	교무기획부 부장 주지훈
붙 임	사진(○), 영상(×)		

창녕여자고등학교 교육부-EBS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

창녕여고, ‘교육부-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문 열어…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첫걸음으로서 플랫폼 마련”

창녕여고, ‘교육부-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문 열어…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첫걸음으로서 플랫폼 마련”

- 창녕여고 교육과정의 미래교육 체제 전환의 일환으로 경남 고등학교 최초 유치
- 기존 249.66㎡ 영어전용실을 학교 안 ‘스터디카페형’ 복합 학습공간으로 혁신
- 학습코디네이터 상주·멘토링·진로지도를 결합한 ‘경남형 자기주도학습 모델’ 본격 가동
- 학기 중 평일 16:30~21:30, 방학 중 10:00~16:00 운영… 농촌 지역 학습 격차 해소 기대

가. 본문

창녕여자고등학교(교장 하태욱)는 ‘교육부-EBS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개소식에는 창녕교육지원청 이종섭 교육장과 경남교육청 담당 조의래 과장 및 장학관, 창녕군 평생교육과 담당자, EBS 자기주도학습센터장, 동창회장, 교사 및 학생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소의 의미를 짚고 개소를 축하했다. 창녕여고는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가지고 학교의 교육과정 전반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공모에 응모하여 경남 고등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센터를 유치한 바 있다. 같은 학교법인 산하 창녕여자중학교가 지난

해 이미 센터를 유치한데 이어 이번에 창녕여고까지 유치하게 됨으로써 중-고 연계 6년간의 자기주성 함양을 기반으로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는 의의를 가진다.

창녕여고는 농촌 지역에 위치한 학교로서 도시에 비해 미래형 학습 인프라가 부족했다. 따라서 학교가 지역사회 교육자원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창녕여고는 경남교육청의 학교 공간 혁신 흐름인 '경남형 스터디카페' 모델과 미래교육의 핵심역량인 '자기주도성(Agency)'을 연계해 센터를 기획했다. 학교는 2026년 10월부터 2027년 12월 까지 프로그램 운영교로 연 1,300만 원을 지원받아 자기주도학습 센터 체계를 더욱 다질 계획이다.

센터는 노후한 영어전용교실과 어학실을 리모델링하여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중점으로 추후, 2029년까지 3학년 교실과 진학실을 이용한 249.66㎡ 규모의 개방형 학습공간으로 자기주도학습 존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학습존, 상담존, 다목적학습존, 휴게공간·홈베이스로 나뉘어 학생이 학습 목적에 맞게 공간을 골라 쓸 수 있다.

1차로 선발된 학생 15명은 학기 중 평일 오후 4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센터를 이용한다. EBS의 유료컨텐츠가 무상으로 제공되며, EBS에서 파견된 학습코디네이터가 개별 학습 계획과 플래너를 관리하고, 교사·졸업생·대학생 멘토단이 온라인과 학습 코칭과 진로 멘토링을 맡는다. 야간에는 운영 총괄 교사가 상주해 안전을 책임진다.

하태욱 교장은 "센터의 유치는 인구절벽 및 미래교육 인프라 부족 등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기르도록 경남형 자기주도학습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10월 8일 창녕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창녕여자고등학교 교육부-EBS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식」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조의래 초등교육과장, 하태욱 창녕여자고등학교장, 박성환 EBS 자기주도학습센터장, 학생들이 개소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도자료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기획부 부장 주지훈(☎055-532-1332)